

2023 학년도 2 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저는 이번 학기 임미진 교수님의 수업에서 글말교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늘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했던 저는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호기심으로 글말교실 1-on-1 코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신청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조서형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저는 교수님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성격이 너무 멋있게 보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처음 만난 날, 교수님과 제가 수업이 없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만날 수 있는지 여쭙었고, 교수님도 좋다고 하셔서 이번 학기 내내 매주 화요일 오후가 되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달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웠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와 전공 공부로 힘들었는데, 교수님과 매주 만나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 주 간의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며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교수님은 제 과제나 전공 공부를 도와 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재미있는 한국어 회화 교재를 함께 공부하며 제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학교생활과 동아리 활동 이야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을지로 고깃집에 관해 얘기하면 교수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잘 들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잘못 사용했던 한국어 어휘를 고칠 수 있었고, 또 모르던 한국어 단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 저는 교수님이 늘 도와주고 싶어 하시던 과제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 과제는 “사제동행 세미나” 수업에서 발표하는

원고였는데, 교수님이 보시고 한국어는 잘 써서 고칠 것이 없고, 발표할 때의 자세와 시선 처리, 발음과 억양에 대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고,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허리와 어깨를 펴고 반듯이 서서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분배하며 어색한 발음에 신경 써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끝냈을 때, 이명종 교수님이 저를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고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하시며, 제가 발표를 아주 잘했으니 “아시아 월정대”에 함께 가면 어떠냐고 물으셨고, 한국 친구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 월 말에 교수님과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저의 고향인 몽골에 갑니다. 한 번도 안 가 봤던 몽골 중앙은행과 국립대학에 가서 한국과 몽골을 이어 주는 통역과 번역을 하며 제 전공인 경제학과 관련 있는 현지 조사도 하게 됩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얼떨떨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교수님께 달려가서 알려 드렸고, 교수님도 저와 함께 기뻐해 주셨지만, 그날은 이번 학기 마지막 글말교실 날이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도 그다음 학기에도 언제든지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기뻐했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 글말교실에 참여하여 교수님과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법, 한국 사람을 대하는 예절도 배우고 저의 사는 얘기도 교수님께 들려주고 싶습니다.